

다니엘서 - 번호 36

느부갓네살의 예언적 상징성: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적 이정표와 올라이 강의 인봉된 이상을 밝히다

Jeff Pippenger
2023-12-31

다니엘서 1장은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첫째와 둘째 천사들의 역사를 나타낸다. 다니엘서 4장도 기원전 723년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첫째와 둘째 천사들의 역사를 다룬다. 물론 이는 '줄 위에 줄'이라는 낯은 비 방법론 없이는 볼 수 없다.

4장에서의 느부갓네살은 매우 복잡한 예언적 상징이다. 윌리엄 밀러의 역사 속에서 올라이 강 환상의 봉인이 풀리는 일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가 무엇을 대표하는지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윌리엄 밀러의 두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레위기 26장의 '일곱 배'를 나타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 전체를 하나로 엮어 주는 예언의 실이다. 다니엘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는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1798년 '끝의 때'에 역사 속에 도래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예표했다.

느부갓네살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되었던 그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 도래는 조사심판이 시작된 1844년 10월 22일을 예표했다. 다니엘서 4장에서는 다니엘이 전한 경고의 기별과 그 경고의 기별과 연관된 심판의 도래가 모두 "hour"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느부갓네살의 심판의 "hour"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hour"를 대표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집행심판이 시작되는 일요일 법령의 "hour"도 예표했다. "hour"라는 단어로 상징된, 1798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도착한 것과 1844년 10월 22일에 셋째 천사가 도착한 것을 나타내는 다니엘서 4장의 그 부분은 이어서 반복되고 확대되어 전개된다. "반복과 확대" 기법은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적 기법이며, 특히 다니엘서에서 두드러진다.

느부갓네살이 심판의 "시간"에 이르자, 그의 심판인 "일곱 때"가 시작되었고, 그는 북방의 왕으로서 기원전 723년에 이스라엘 북왕국에 임한 심판을 대표했다. 그는 짐승의 마음을 부여받았고, 성경 예언에서 짐승은 한 왕국을 가리킨다. 그리고 기원전 723년부터 1798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니엘서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이교의 두 형태를 대표했다.

1260일 동안, 곧 1260년을 상징하여 그는 이교의 황폐케 하는 세력을 대표했고, 그런 다음 또 다른 1260일 동안, 곧 1260년을 상징하여 그는 교황권의 황폐케 하는 세력을 대표했다. 이 두 황폐케 하는 세력의 본질은 같았는데, 교황주의는 단지 기독교를 표방한 이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니엘 12장에서 제시된 상징인 "날들의 끝", 곧 1798년의 "끝의 때"에 그의 왕국이 그에게 회복되었다. 다니엘 4장의 증언과 예언의 신은 그의 왕국이 "날들의 끝"에 회복되었을 때 그가 회심한 사람이었음을 밝힌다. 그는 그 후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예표하는 예언적 상징이 된다. 그는 자신의 "일곱 때" 전반부에서 그가 대표했던 이교의

용의 권세와, "일곱 때" 후반부에서 그가 대표했던 짐승의 권세 사이를 잇는 예언적 연결고리가 된다. 그 두 권세의 상징으로서, 1798년에 회복된 왕국으로서 있는 그는 이어 두로의 음녀가 잊혀져 있는 동안 상징적인 칠십 년 동안 통치할 세 번째 황폐하게 하는 권세(거짓 선지자)를 대표한다. 바벨론의 왕으로서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때 현대 바벨론이 될 세 권세 사이의 예언적 연결고리를 대표하며, 그것이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탄생을 땅의 짐승으로 표상했는데, 그 짐승은 1798년에 그의 회심 체험으로 상징되는 어린양으로 시작했다. 그는 동시에 땅의 짐승의 두 뿔을 공화주의와 개신교로 나타냈는데, 이 둘은 미국의 힘을 상징했고, 그 힘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대받는 나라가 되게 했다. 그러나 상징적 70년이 끝날 때 그 두 뿔은 배도한 공화주의와 배도한 개신교로 나타나게 되며, 두 뿔 모두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 공화주의의 뿔은 헌법의 신성한 원칙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민주당과, 헌법의 수호자요 옹호자라고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그 신성한 원칙들을 부인하고 그 신성한 문서에 담긴 원칙들보다 전통과 관습을 앞세우는 공화당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두 당파는 그리스도 당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상징되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정신은 배도한 개신교의 뿔에서도 나타날 것이며, 한 부류는 일요일 예배를, 다른 부류는 안식일 예배를 고수할 것이다. 1798년, "날들의 끝"에 회심한 느부갓네살의 상태는 미국과 땅의 짐승의 두 뿔을 적절하게 상징한다. 세 가지 상징, 곧 땅의 짐승과 그 두 뿔은 어린양에서 용으로 변하도록 되어 있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일곱 때'의 끝에서, 그의 문자적 바벨론 왕국이 마지막 때의 현대 바벨론을 상징함을 확인시켜 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그 현대 바벨론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짐승이 대표하는 세 가지 예언적 실체를 대표했는데, 그 짐승은 두로의 음녀가 잊혀지는 상징적 칠십 년 동안 어린 양에서 용으로 변한다. 그의 문자적 왕국이 바로 상징적 칠십 년 동안 통치하는 왕국을 예표하는 왕국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상징은 1장에 겹쳐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적용하면 밀러파 역사의 이정표들이 한데 모아지며, 그 당시 봉인이 풀린 율레 강의 환상에 관한 여러 진리를 확증해 준다. 밀러파 운동의 기초이자 중심 기둥은 다니엘 8장 13절과 14절의 질문과 대답이었다. 그 질문은 이러하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케 하는 죄악에 관한 그 환상이 어느 때까지이겠으며, 성소와 군대가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어 주는 것이 언제까지이겠느냐?"

성경에 추가된 수백, 아니 수천 개의 단어들 가운데, 본문에 속하지 않는다고 영감이 지적하는 것은 오직 추가된 단어 "sacrifice"뿐이다. 그 단어를 바르게 제거하면 "the daily"와 "the transgression"이 서로 구별되는 두 황폐케 하는 권세임이 분명해진다. 화이트 자매는 "sacrifice"라는 단어가 인간의 지혜로 덧붙여졌고 본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며, 같은 대목에서 밀러주의자들이 "the daily"를 이교로 규정한 것이 옳았다고도 밝힌다. 13절의 질문 속에 있는 문법적 용어들은 그리스도께서 화이트 자매의 저술을 통해 세심하게 밝혀 주셨고, 본문들과 영감으로 추가된 지침들에 의해 규율될 때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도록 되어 있는 이교와

교황주의라는 두 황폐케 하는 권세에 관한 그 환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을 1798년, 즉 '끝의 때'에 두면, 그는 회심한 사람을 대표하게 되며, 따라서 재림주의의 중심 기둥과 초석을 이해하게 될 '지혜로운 자들'을 대표한다. 그의 회심은 그때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식별해 주지만, 그의 예언적 상징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군대)과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을 이교주의와 교황주의의 황폐하게 하는 권세의 이상이 얼마 동안이겠는가?"라는 질문의 주제가 되는 역사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지식의 증가'를 이해하는 '슬기로운 처녀'의 상징으로서 그는 윌리엄 밀러를 대표하는데, 밀러는 1798년 '끝의 때'에 시작된 역사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은 '끝의 때'라는 이정표의 상징이다. 그 상징을 1장에 대입해 보면, 그는 또한 그때 첫째 천사의 도착을 대표한다. 이는 4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시각'이 첫째 천사가 도착한 때를 표시하며, 그것이 1798년이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의 심판이 임한 '시각'은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하나님의 조사 심판의 '시각'을 대표했다. 4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상징이 제시하는 이정표들은 기원전 723년, 서기 538년, 1798년(끝의 때),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이다.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밀러라이트 역사상의 이정표는 여호야김에서 시작하는데, 그는 1798년 '끝의 때'에 도래한 첫째 기별에 권능이 부여됨을 상징한다. 여호야김으로 대표되는 첫째 기별의 권능 부여는 1840년 8월 11일을 가리킨다. 여호야김이 정복당함으로써 바벨론의 70년 통치가 시작되며, 그 기간은 고레스의 조서로 끝난다. 다니엘서 1장은 먼저 식이 시험으로 나타나고, 이어 시각적 시험이 뒤따르며, 마지막에는 시금석이 되는 시험으로 마무리되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제시한다. 그 세 가지 시험은 1840년 8월 11일을 상징하는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다름없는 위대한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책을 그때 '먹어야' 했다. 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선택했던 것과 같다.

그 과정의 두 번째 시험은 개신교 교회들이 밀러의 기별(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음이 드러난 때였고, 그로 인해 밀러주의 운동과 그때부터 배도한 개신교로서의 예언적 역할을 시작한 개신교 교회들 사이에 구별이 보이게 되었다. 그 두 부류 사이의 구별은 바벨론의 음식 대신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안색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졌던 것만큼이나 뚜렷했다. 그 구별은 1843년 성경력의 연말(1844년 4월 19일), 곧 열 처녀 비유의 지체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분명히 드러났다.

세 번째 시험, 곧 시금석이 되는 시험은 3년이 지나 느부갓네살이 직접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열 배' 더 낫다고 판단하고 선언한 그 '때'가 온 1844년 10월 22일을 나타냈다. 다니엘서 4장을 1장 위에 겹쳐 놓으면 1798년의 '끝의 때'로 시작하여 1840년 8월 11일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권능을 받은 때, 1844년 4월 19일의 첫 실망,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에 이르는 밀러 운동의 역사상의 이정표들이 드러난다.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특정 이정표들을 식별하는 것을 넘어, 그 두 장은 "줄 위에 줄"로 함께 놓아 볼 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보여 주고, 이천삼백 주야의 기초 교리의 주제인 황폐케 하는 두 세력을 밝혀 주며, 또한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릴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다니엘 12장의 세 단계 시험 과정도 제시한다.

그들은 또한, 1798년에 '지혜로운 자'의 상징으로 제시되는 느부갓네살이 4장에 나오는 그의 두 번째 꿈과 더불어, 장차 참된 개신교의 뿌리 될 그 운동의 주역인 윌리엄 밀러를 대표한다고 본다. 재림주의 기초적 진리들을 대표하는 윌리엄 밀러의 사역은 하박국의 두 표에 제시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두 표의 제작을 인도하셨다.

밀러는 예언 역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 때문에, 황폐하게 하는 세 세력이 있다는 사실, 즉 이교(용)와 교황권(짐승)뿐 아니라 배도한 개신교(거짓 선지자)까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여러 예언적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속에서 그의 관점에 의해 제한되었던 밀러의 그러한 예언에 대한 이해들은 하박국의 두 거룩한 도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윌리엄 밀러의 두 번째 꿈을 나타낸다. 두 꿈 모두 '일곱 때'를 다루며, 밀러의 꿈은 1863년에 시작된 그의 사역에 대한 거절을 지적하고 그 거절이 한밤중의 외침 때까지 점점 심해진다고 밝힌다. 두 꿈은 모두 흠여짐의 기간 후에 왕국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1798년에 봉인이 풀린 올라이 강의 환상을 직접 다루기 전에 먼저 밀러의 두 번째 꿈을 살펴볼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이 약 10인치, 가로와 세로가 각각 6인치인, 흑단과 진주를 기묘하게 상감하여 만든 정교한 상자를 내게 보내 주시는 꿈을 꾸었다. 그 상자에는 열쇠가 하나 달려 있었다. 나는 곧바로 그 열쇠를 집어 상자를 열었는데, 놀랍고도 경이롭게도, 그 안에는 온갖 종류와 크기의 보석들, 다이아몬드, 진귀한 보석들, 그리고 크기와 가치가 제각각인 금화와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고, 상자 안의 각기 제자리에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렇게 배열된 그것들은 오직 태양에만 비길 수 있는 빛과 영광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내용물의 찬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가치에 내 마음은 한껏 기뻐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은 내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 올려놓고,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와서 이 생에서 인간이 본 것 가운데 가장 장엄하고 찬란한 광경을 보라고 알렸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수가 적었지만 점점 늘어나 군중이 되었다. 처음 보석함을 들여다봤을 때, 그들은 놀라워하며 기쁨에 환호했다. 그러나 구경꾼이 많아지자 모두가 보석을 건드리기 시작해, 보석함에서 꺼내 탁자 위에 흠여 놓았다. 나는 주인이 다시 내게서 보석함과 보석을 돌려받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들이 흠여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예전처럼 보석함 안의 제자리에 다시 넣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막중하여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으리라 여겨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보석함에서 꺼내지도 말아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지만, 내가 간청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흠여 놓았다. 이제는 방 안 곳곳, 바닥과 방 안의 모든 가구 위에까지 그것들을 흠여 놓는 듯했다.

그때 나는 그들이 진짜 보석과 주화 사이에 무수한 가짜 보석과 위조 주화를 흠뿌려 놓았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비열한 행실과 배은망덕함에 크게 격분하여 이를 두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내가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그들은 진짜 것들 사이에 가짜 보석과 가짜 주화를 더 많이 흠뿌렸다.

그러자 나는 육체의 혼이 괴로워져 물리력을 써 그들을 방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가 한 명을 밀어내는 사이에 세 명이 더 들어와 먼지와 깎아낸 부스러기와 모래와 온갖 쓰레기를 들여와, 참된 보석들, 다이아몬드, 동전 하나하나를 전부 덮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들은 또 내 귀짝을 산산이 부수어 그 조각들을 쓰레기 더미 속에 흩어놓았다. 아무도 내 슬픔이나 분노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완전히 낙담하고 낙심하여 앉아 울었다.

이처럼 큰 상실과 책임으로 인해 울며 애통해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게 도움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곧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이 모두 방에서 나갔다. 그는 손에 빗자루를 든 채 창문을 열고, 방 안의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참으라고 소리쳤다. 쓰레기더미 사이에 귀중한 보석이 몇 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게 말했다. 그가 '그들을 돌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가 먼지와 잡동사니, 가짜 보석과 위조 동전을 쓸어내자, 그것들은 모두 구름처럼 치솟아 창밖으로 나갔고, 바람이 그것들을 실어 가 버렸다. 소란 속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니 잡동사니는 모조리 사라져 있었다. 귀중한 보석들, 다이아몬드, 금화와 은화가 온 방 안에 넘치도록 흩어져 있었다.

그는 그런 다음 탁자 위에 이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보석함을 하나 올려놓고,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동전들을 한 움큼씩 그러모아 보석함에 던져 넣었으며, 어떤 다이아몬드는 핀 끝보다도 크지 않았지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와서 보라'고 요청했다.

"나는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광경에 눈이 부셨다. 그것들은 이전의 영광보다 열 배나 더 찬란하게 빛났다. 나는 그것들이, 그것들을 티끌 속에 흩어버리고 짓밟은 그 악한 자들의 발에 의해 모래에 문질러져 닳아버렸으리라고 생각했다. 그것들은 상자 안에 아름다운 질서로, 각각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것들을 던져 넣은 사람의 애쓴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고, 그 외침에 잠에서 깨어났다." *Early Writings*, 81-83.

다음 기사에서 밀러의 꿈을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윌리엄 밀러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소개글로, 제임스 화이트가 애드벤처 헤럴드에 밀러의 꿈을 게재할 때 쓴 것이다.

다음의 꿈은 *Advent Herald*에 2년이 조금 넘게 앞서 게재되었다. 그때 나는 그것이 우리의 과거 재림 경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의 유익을 위해 그 꿈을 주셨음을 보았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오를 알리는 표징들 가운데 하나님은 꿈을 두셨다. 요엘 2:28-31; 사도행전 2:17-20 참조. 꿈은 세 가지 방식으로 올 수 있다. 첫째, '많은 일로 말미암아'. 전도서 5:3 참조. 둘째, 더러운 영과 사탄의 속임수 아래 있는 자들은

그의 영향으로 꿈을 꿀 수 있다. 신명기 8:1-5; 예레미야 23:25-28; 27:9; 29:8; 스가랴 10:2; 유다서 8절 참조.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천사들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오는 꿈으로 그의 백성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소 가르쳐 오셨고, 지금도 가르치신다.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주실 때 그것을 알 것이며, 그러한 자들은 거짓된 꿈에 속아 미혹되거나 길을 잘못 들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르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리라.' 민수기 12:6. 야곱이 말하였다, '여호와와 사자가 꿈에 내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31:2.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오셨다.' 창세기 31:24. 요셉의 꿈들을 읽어 보라(창세기 37:5-9), 그리고 그것들이 애굽에서 성취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 보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다.' 열왕기상 3:5. 다니엘 2장의 매우 중요한 큰 형상은 꿈으로 주어졌고, 7장의 네 짐승 등도 마찬가지였다. 헤롯이 아기 구주를 멸하려 할 때 요셉은 꿈에 애굽으로 피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마태복음 2:1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17.

꿈과 환상을 통한 예언의 은사는 여기서 성령의 열매이며, 말세에는 표적이 될 만큼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복음 교회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이들은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4:11-12.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 둘째는 예언자들' 등. 고린도전서 12:28.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20. 또 사도행전 13:1; 21:9; 로마서 7:6; 고린도전서 14:1, 24, 39도 보라. 예언자들이나 예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전도자들과 목사들과 교사들이 그치기 전에 예언자들이나 예언이 그쳐야 한다는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자는 이렇게 말한다. '거짓 환상과 꿈이 너무도 많았기에, 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것에도 신뢰를 둘 수 없다.' 사탄에게도 그의 위조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항상 거짓 예언자들을 거느려 왔으며, 기만과 승리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들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위조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타당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적이 없다고 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조물은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수단이다. 이 수단을 통해 그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복음 교회의 은사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두셨으며, 꿈과 환상을 '마지막 때'의 다른 징조들과 함께 두셨다. 아멘.

"앞서의 언급에서 나의 목적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의들을 해소하고, 독자가 다음 내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임스 화이트.